

CEO Report

2023년 보험산업 수정 전망

금융시장분석실

05호
2023.07



CEO Report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주요국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하고 금융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근원물가 압력 지속 및 통화긴축 기조 유지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이외에도 미·중 대립, 중국의 경기 하방 위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함. 한편,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점유율 경쟁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제·금융·영업 환경을 고려하여 2023년 보험산업을 수정 전망함

2023년 생명보험 개인보험 초회보험료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44.7% 감소(2021년 대비 18% 증가)한 14.2조 원,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5.7% 증가한 1.3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2022년 대규모 일시납 저축보험 판매로 초회보험료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2023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2023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5.4% 감소(2021년 대비 5.6% 증가)한 125.5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종목별로 보면, 보장성보험은 건강 및 질병보험 판매가 확대되어 2.0% 성장이 전망됨. 일반저축성보험은 전년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25.0% 감소,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로 9.6% 감소가 예상됨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중심으로 전년 대비 4.4% 성장한 125.4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종목별로 보면, 장기손해보험은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8% 성장이 예상됨.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하와 온라인채널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2% 성장에 그치고, 일반손해보험은 배상책임, 종합, 기타특종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가 전망됨

최근 보험회사 간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의 편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경제·금융 불확실성 지속, 영업경쟁 심화, 회계제도 변화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보험회사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회계제도로 인해 성과가 경제·금융 변수에 더욱 민감해진 것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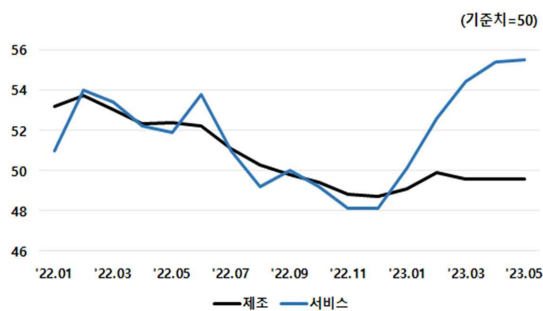
경영환경

1. 경제

○ 서비스업 회복과 견조한 고용상황으로 인해 최근 주요국 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생산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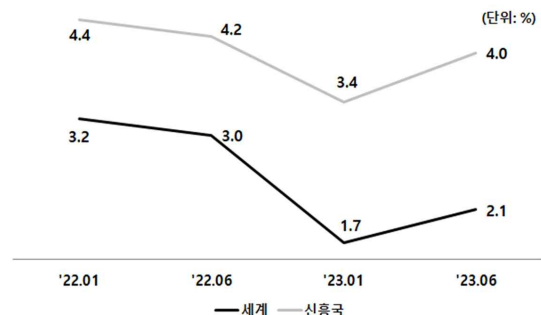
- World Bank는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3년 1월에 1.7%로 전망했지만, 6월에는 2.1%로 0.4%p 상향 조정함
- 2023년 들어 민간소비 회복으로 글로벌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상승하였지만, 글로벌 제조업 PMI는 여전히 50 이하로 부진한 상황임

〈그림 I-1〉 글로벌 제조·서비스업 PMI



자료: Bloomberg

〈그림 I-2〉 World Bank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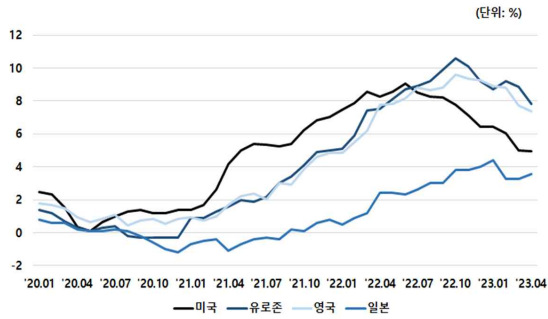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 주요국 물가는 하락세이나 여전히 물가안정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고, 미국과 유로존의 근원 물가도 여전히 5%대여서 하반기에도 통화긴축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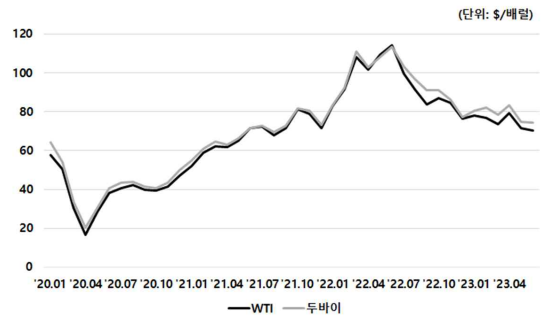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에너지·곡물 가격이 주요국 중앙은행의 강한 긴축 통화정책 추진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며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음

〈그림 I-3〉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IMF; OECD

〈그림 I-4〉 국제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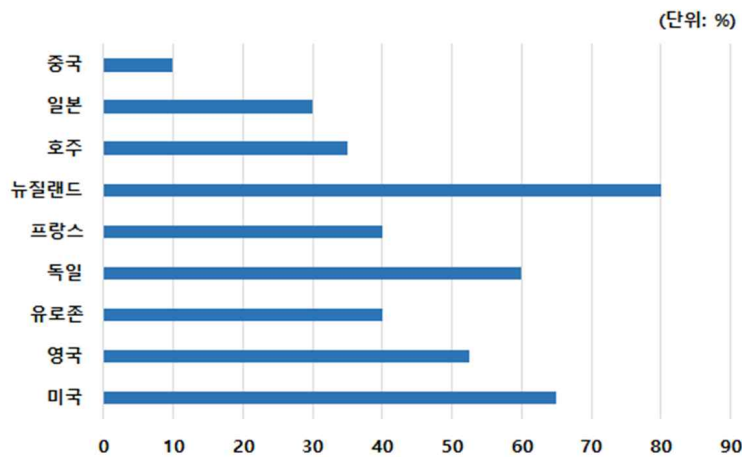


자료: Petronet

○ 주요국 통화긴축의 여파 이외에도 미·중 대립, 중국의 경기하방 위험, 지정학적 위험(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점도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 글로벌 투자은행(IB)은 미국, 독일, 영국, 뉴질랜드의 1년 이내 경기침체 확률을 50%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음
- 중국은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내수가 부진하며, 20%를 상회하는 높은 청년실업률, 높은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으로 경기하방 위험이 높은 상태임

〈그림 I-5〉 주요국의 1년 이내 경기침체 확률



주: 2023년 6월 초 기준임

자료: Bloomberg

○ 한국은행과 KDI는 대체로 국내 경기가 하반기부터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1.5%가 될 것으로 전망함

- 2023년 상반기 민간소비는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되고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였지만, 하반기에는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회복세가 예상되며, 반도체 수출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표 I-1〉 국내 경제전망

구분	2021	2022	2023(F) ¹⁾	
			한국은행 ²⁾	KDI ³⁾
실질GDP	4.1	2.6	1.4	1.5
민간소비	3.7	4.3	2.3	3.0
설비투자	9.0	-0.5	-3.2	1.1
건설투자	-1.6	-3.5	-0.4	0.4
지식생산물투자	4.4	4.7	3.3	3.2
상품수출	10.5	3.4	0.4	0.7
상품수입	12.8	4.7	-0.2	0.9
실업률	3.7	2.9	3.0	2.9
소비자물가	2.5	5.1	3.5	3.4
경상수지(억 달러)	852	298	240	164
상품수지(억 달러)	757	151	195	61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 달러)	94	148	45	102

주: 1) 2023(F)는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23. 5),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23. 5), 『KDI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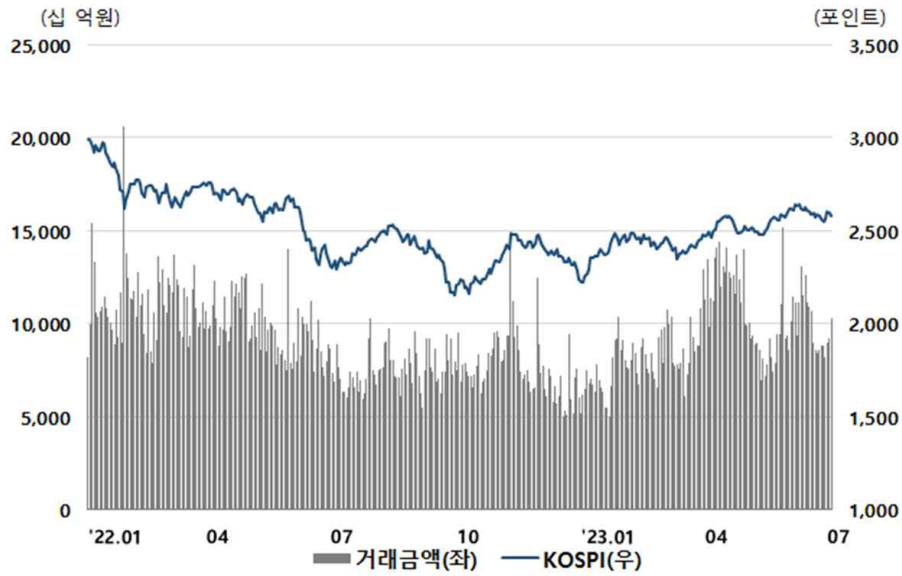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KDI

2. 금융

○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Pivot) 기대로 인해 주가 회복, 달러 약세, 장기금리 상승 등 금융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러한 금융여건 개선의 지속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

- 2023년 초반에 미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 SVB 파산 등으로 하락하였던 주가는 3월 중순 이후 주요국의 통화긴축 완화 기대 등의 요인으로 반등함
- 금융여건 개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가 소멸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어야 하나 근원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

〈그림 I-6〉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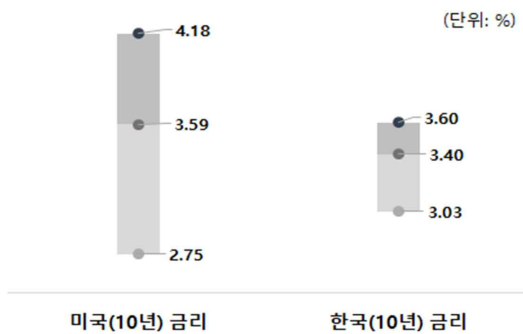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금리, 환율 전망의 편차가 여전히 크며, 이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임을 방증함

- 글로벌 IB의 2023년 하반기 미국채 10년물 금리 전망의 분포는 2.75~4.18%이며, 2023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 전망의 편차는 6월에도 여전히 큰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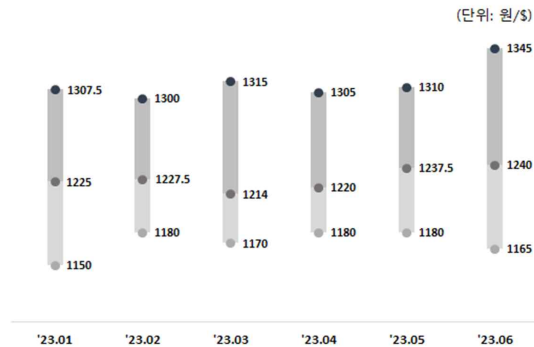
〈그림 I-7〉 2023년 하반기 국채 금리 전망 분포



주: 2023년 7월 초 기준임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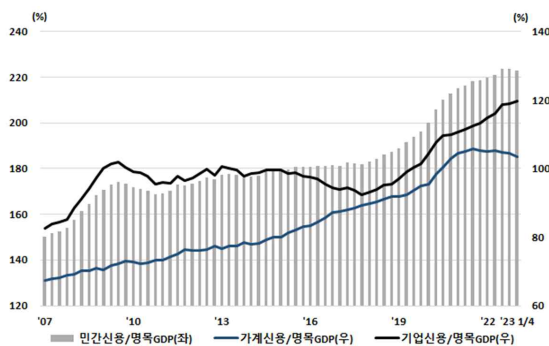
〈그림 I-8〉 2023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 전망 분포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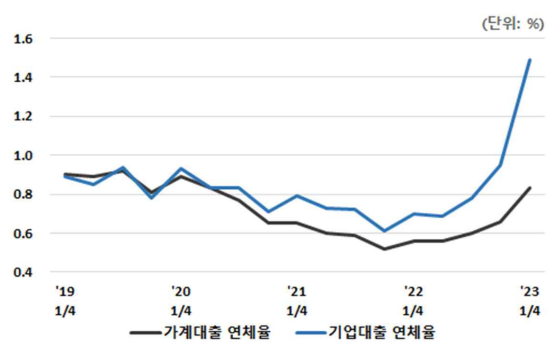
- 최근 미 연준의 매파적 기초 유지와 견조한 고용시장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세인데, 이러한 장기금리 상승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여전히 장단기 금리 역전이 큰 상태로, 최근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은 경제전망이 개선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에 의한 수익률 곡선의 상향 조정으로 보임
-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는 감소세이지만 기업 부채 규모는 여전히 상승세이며, 기업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이 매우 큰 시점으로 보임
 -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시작된 2021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했지만, 명목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2022년 하반기부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여, 2023년 1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0.83%, 기업대출 연체율은 1.49%를 기록함

〈그림 I-9〉 신용 레버리지



자료: 한국은행(2023. 6), 『금융안정보고서』

〈그림 I-10〉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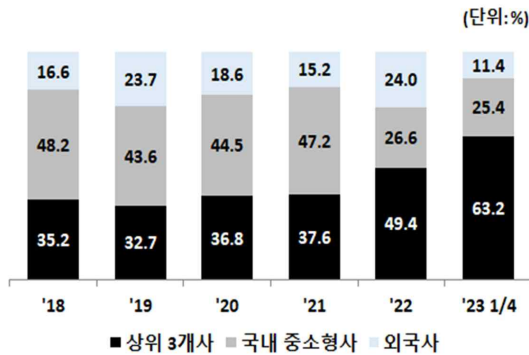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2023. 6), 『금융안정보고서』

3. 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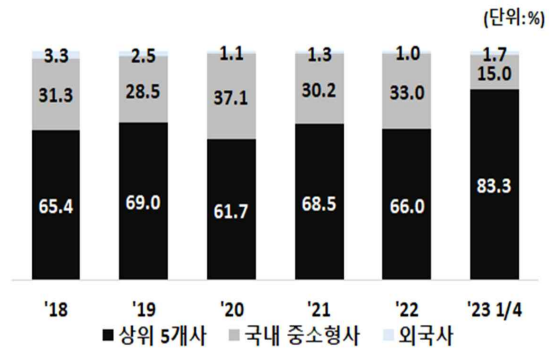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대형사 중심의 시장점유율 경쟁이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이 최근 더 크게 나타남
 - 생명보험 상위 3개사 초회보험료 점유율은 2020년 36.8%에서 2023년 1분기 63.2%로, 장기손해보험 상위 5개사 초회보험료 점유율은 2020년 61.7%에서 2023년 1분기 83.3%로 확대됨
 - IFRS17 시행으로 보험계약마진(CSM)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일부 보장성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기조는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임

〈그림 I-11〉 생명보험 그룹별 초회보험료 점유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12〉 장기손해보험 그룹별 초회보험료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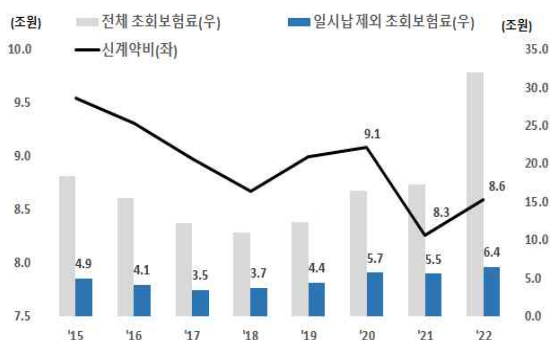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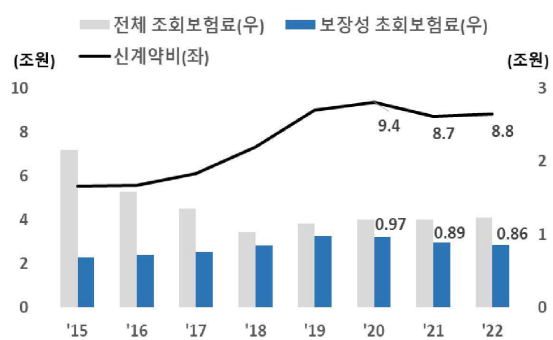
○ 영업비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2021년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 이후 감소했던 신계약비 규모가 2022년 하반기부터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업경쟁 심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¹⁾

- 2021년 전체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이전에 비하여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계약비는 생명보험(-9.1%)과 손해보험(-7.1%) 모두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1년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으로 보장성보험 계약 체결 후 1년 동안 지급하는 수수료 수준이 1년간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수준 이내로 제한²⁾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2022년 하반기부터 일부 종목의 신규 보험계약이 증가하면서 신계약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특히, 보장성보험의 초회보험료 1원당 신계약비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보장성보험의 판매 비용 상승과 영업 경쟁 확대를 시사함

〈그림 I-13〉 생명보험 신계약비 및 초회보험료 규모



〈그림 I-14〉 장기손해보험 신계약비 및 초회보험료 규모



1) 조영현·최원(2023. 5. 8), 「보험회사 신계약비 변동과 시사점」,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2)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을 참조하였으며, 여기서 보장성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을 제외함

4. 전망의 전제

- 작년 10월 발표한 전망의 예상보다 2023년 경제·금융 환경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하며, 2023년 상반기에 예상보다 강했던 영업 경쟁은 하반기까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함
 - 주요 기관의 대체적인 전망에 따라 하반기 경기는 상반기에 비해 완만하게 개선될 것을 가정함
 -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강한 영업 경쟁 지속으로 2023년 보험산업의 보험료 수입은 지난 전망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금융 환경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망의 불확실성 역시 큼
 - 장기금리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소폭 높은 수준일 것으로, 주가는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나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환율은 상반기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함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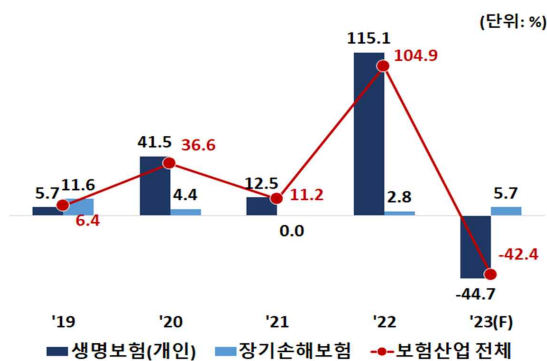
전망

1. 초회보험료

○ 2023년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규모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42.4% 감소한 15.5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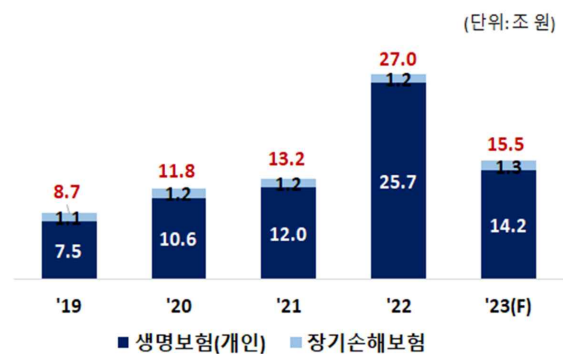
- 2023년 생명보험 개인보험 초회보험료 규모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44.7% 감소(2021년 대비 18% 증가)한 14.2조 원,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5.7% 증가한 1.3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함
- 2022년 생명보험 개인보험 초회보험료는 하반기 대규모 일시납 저축보험 판매로 인해 전년 대비 115.1% 증가한 25.7조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이와 같은 대규모 일시납 초회보험료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함
- 2012년과 2022년 일반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의 일시납 초회보험료 규모가 유사한 것을 감안하면 (2012년 25.8조 원, 2022년 23.7조 원), 유동성 확보 목적의 저축보험 금리경쟁이 재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그림 II-1〉 초회보험료 증가율 전망



주: 생명보험은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을 제외한 개인보험이며,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2〉 초회보험료 규모 전망



주: 생명보험은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을 제외한 개인보험이며,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Box 1 ▶ 일반저축성보험의 일시납 초회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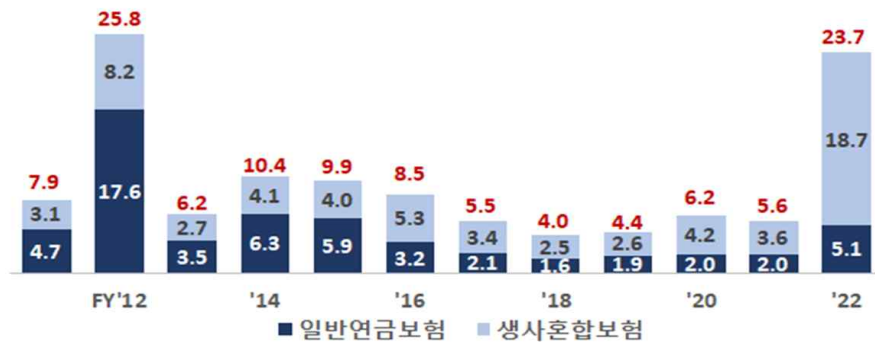
○ 2022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은 주로 저축보험 일시납 초회보험료의 대규모 유입 때문임

-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2012년에 일반연금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판매가 급증하였으며, 일반연금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일시납 초회보험료가 25.8조 원을 나타냈음
- 2022년에 해당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재가입 수요가 확대되고 공시이율도 상승하면서 일반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의 일시납 초회보험료가 또다시 크게 증가하여 23.7조 원을 기록함

* 연금의 비과세대상 범위가 줄어들고 중도인출 시 과세는 강화되는 등의 세제개편으로 제도 변경 직전에 일시납 연금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의 가입이 크게 확대됨

〈Box 1 그림 1〉 일반연금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일시납 초회보험료 규모

(단위:조 원)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2년과 2022년 일반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의 일시납 초회보험료 규모가 유사한 것을 감안하면 (2012년 25.8조 원, 2022년 23.7조 원), 유동성 확보 목적의 저축보험 금리경쟁이 재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추가적인 만기 도래 수요의 재가입과 공시이율 상승에 따른 수요확대가 전망됨

○ 생명보험 종목별 초회보험료의 경우 보장성보험, 일반저축성보험, 변액저축성보험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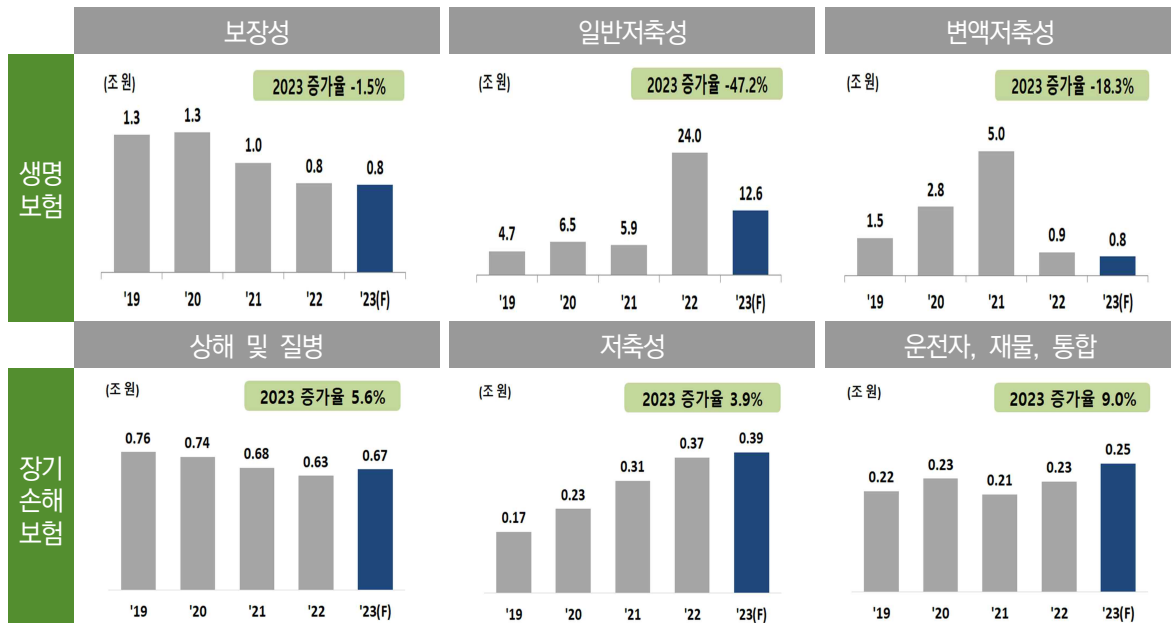
-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신보험의 신규판매 확대가 어려워 감소할 전망이다
- 일반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연금보험 회복세에도 저축보험의 기저효과에 따른 축소로 전체적인 감소세가 전망됨

- 변액저축성보험의 경우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초회보험료의 감소세 유지가 예상됨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상해 및 질병보험과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의 성장이 예상됨

- 상해 및 질병보험과 운전자보험은 2023년 상반기와 유사한 영업 경쟁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그림 II-3〉 종목별 초회보험료 전망



주: 초회보험료는 1회차 보험료로 일시납 보험료와 비일시납 보험료를 모두 포함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수입보험료

가. 보험산업 총괄

○ 2023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도 일시납 보험료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5.4% 감소가 전망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중심으로 전년 대비 4.4% 성장이 전망됨

〈표 II-1〉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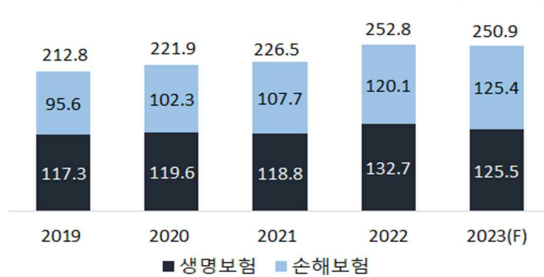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119.6	2.0	118.8	-0.6	132.7	11.6	125.5	-5.4
손해보험	102.3	7.0	107.7	5.3	120.1	11.5	125.4	4.4
보험산업 합계	221.9	4.3	226.5	2.1	252.8	11.6	250.9	-0.7
(퇴직연금 제외)	(186.2)	(5.6)	(188.4)	(1.2)	(202.7)	(7.6)	(195.3)	(-3.7)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그림 II-4〉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 전망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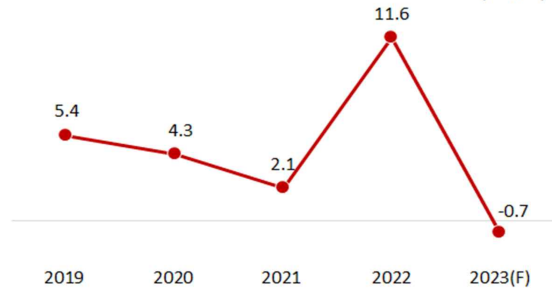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5〉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

(단위: %)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생명보험

1) 개요

○ 2023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보험 및 투자형 상품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가 전망됨

-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신규 판매 축소에도 건강 및 질병보험 중심으로 소폭의 성장이 전망됨
- 일반저축성보험은 타 금융권 저축상품과의 금리 격차 축소와 전년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가 전망됨
-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회복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여 감소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임

〈표 II-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장성 ²⁾	46.1	3.8	45.8	-0.7	47.9	4.5	48.9	2.0
일반저축성 ³⁾	34.7	9.8	32.0	-7.8	45.1	40.9	33.9	-25.0
변액저축성 ⁴⁾	15.4	-2.3	16.4	6.2	11.3	-30.9	10.2	-9.6
기타 ⁵⁾	0.7	-2.1	0.8	1.1	0.8	0.7	0.8	1.1
퇴직연금	22.6	-8.5	23.9	5.8	27.5	15.5	31.8	15.4
생명보험 합계	119.6	2.0	118.8	-0.6	132.7	11.6	125.5	-5.4
(퇴직연금 제외)	97.0	4.8	95.0	-2.1	105.1	10.7	93.7	-10.8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보장성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을 포함함

3) 일반저축성에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등을 포함함

4) 변액저축성에는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등을 포함함

5)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을 포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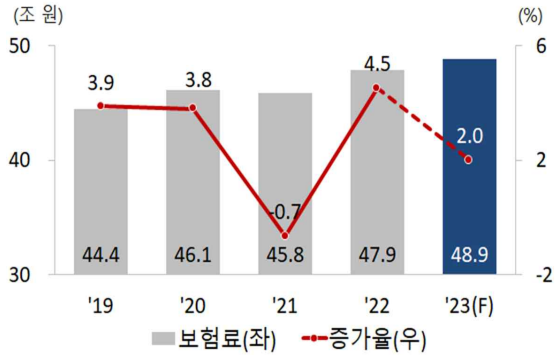
2) 보장성보험³⁾

○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질병, 건강, 상해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0% 성장할 전망이다

- 고령화와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주로 사망을 담보하고 있는 일반종신보험의 신규판매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다만,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와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 등으로 질병, 건강, 상해보험의 신규판매는 확대될 것임
- 한편, 경기둔화 우려, 판매채널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제3보험 경쟁심화 등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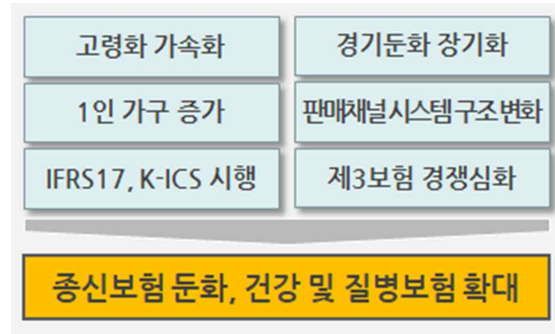
3)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CI·건강보험·변액종신보험을 포함함

〈그림 II-6〉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7〉 보장성보험 시장 환경 전망



3) 일반저축성보험⁴⁾

○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금리상승에 따른 저축수요 확대에도 전년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25.0% 감소가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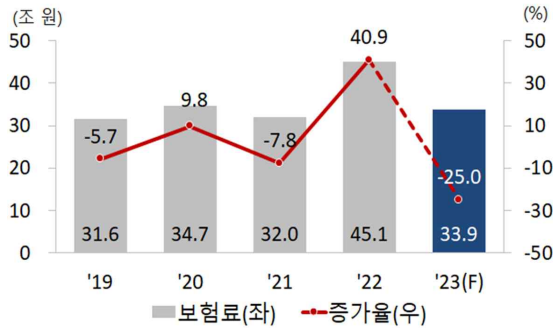
- 일반연금보험은 공시이율 상승과 은퇴 이후 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 등으로 회복세가 예상되나, 전년도 하반기의 일시납 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할 것임
- 개인연금보험은 세법개정⁵⁾에 따른 신규가입 유인 확대에도 추가적인 세액공제 수요가 한정적이며, 수년 동안 지속된 수요둔화의 영향도 존재하고 있어 감소세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임
- 저축보험은 공시이율 상승, 만기 후 재가입 수요, 방카슈랑스 채널의 판매 확대 유인⁶⁾ 등으로 신규판매 확대가 나타날 수 있으나, 전년도 급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역성장이 예상됨
 - 특히, 저축보험은 타 금융권과의 금리경쟁을 계속하기 어렵고 만기 자금의 재가입도 상당 부분 마무리 되고 있어 증가세는 둔화될 것임(〈그림 II-9〉, 〈Box 1〉 참조)

4) 일반저축성보험은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을 포함하며, 생존보험은 일반연금보험, 개인연금보험, 기타로 구성되며 생사혼합보험은 저축보험 상품이 큰 비중을 차지함

5) 2023년부터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 12. 23), “2023년 세법개편안 본회의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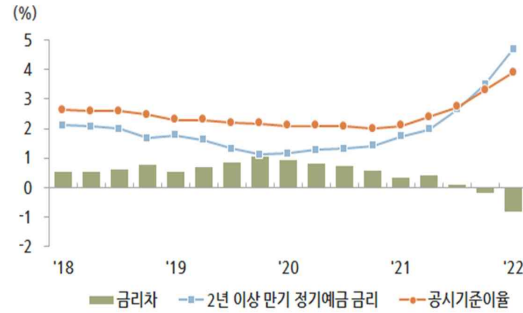
6)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판매 수수료 수입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저축보험 상품 판매를 확대하기도 함

〈그림 II-8〉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9〉 정기예금 금리 및 공시기준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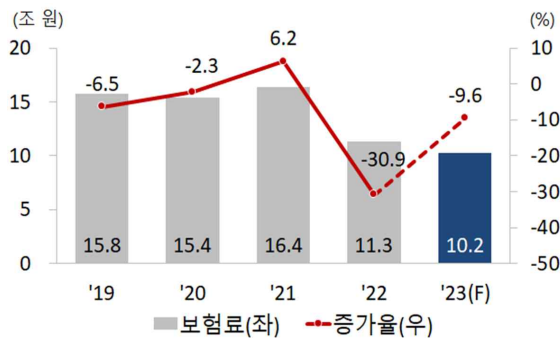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보험개발원

4) 변액저축성보험⁷⁾

○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불안 지속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년 대비 9.6% 감소가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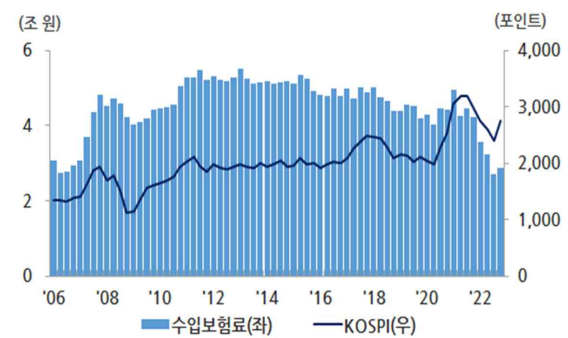
- 경기둔화와 금리상승에 따른 유동성 축소 등으로 주식시장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형 보험 상품의 신규판매 확대는 제한적일 것임
- 또한, 경기둔화의 심화와 투자심리의 급격한 위축 등에 따른 보유계약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자본관리 부담이 적은 변액보험의 판매를 확대할 유인이 있는 상황임

〈그림 II-10〉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1〉 주가지수와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한국거래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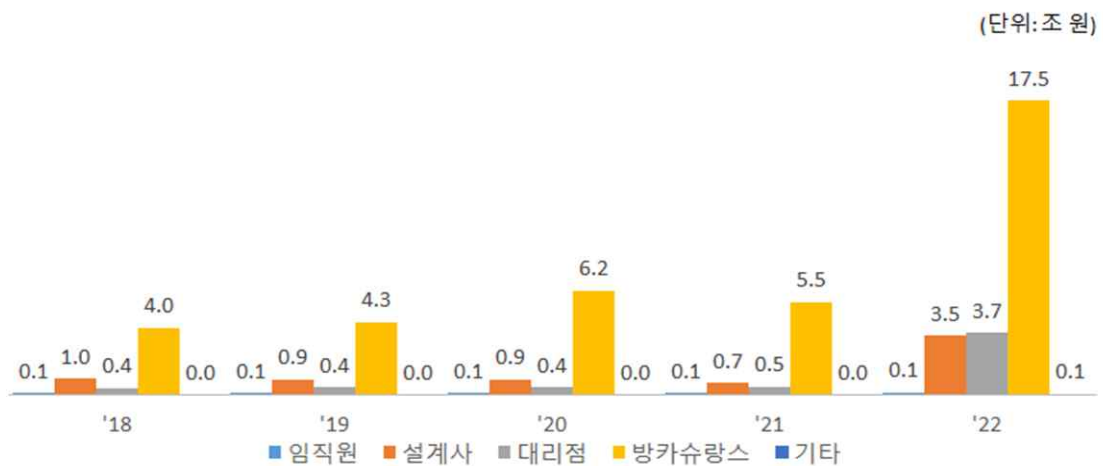
7) 변액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을 포함함

Box 2 ▶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 판매채널별로 보면, 생명보험은 2022년 방카슈랑스 채널의 신규판매가 크게 확대됨

- 이는 기존 저축보험 계약의 만기, 공시이율 상승 등으로 일시납 저축보험 가입이 급증했기 때문임
- 임직원 채널의 신규판매 역시 확대되었는데, 이는 공시이율 상승 및 퇴직연금 유치경쟁으로 퇴직연금 보험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Box 2 그림 1〉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추이



주: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3년에는 방카슈랑스 채널의 초회보험료 역성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에 이미 만기가 도래한 저축보험의 재가입은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추정되나, 여전히 고금리 저축상품의 수요는 존재할 것임
- 2022년 초회보험료 급성장으로 2023년에는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 채널의 초회보험료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임
- 특히, 저축보험 비중이 큰 방카슈랑스 채널 초회보험료에 미치는 영향과 변동성이 더욱 클 것임

다. 손해보험

1) 개요

○ 2023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성장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가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은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가 전망됨
-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하와 온라인채널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에 그칠 것임
- 일반손해보험은 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 기타특종보험 성장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할 것임
-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확대에도 불구하고 7.9% 감소가 전망되며, 퇴직연금은 IRP 시장 확대 등으로 6.0% 증가가 예상됨

〈표 II-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종목	2020		2021		2022		2023(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해보험	55.9	5.3	58.8	5.2	61.8	5.0	64.8	4.8
개인연금	3.0	-9.1	2.6	-13.3	2.2	-15.9	2.0	-7.9
자동차	19.6	11.6	20.3	3.7	20.8	2.4	21.1	1.2
일반손해보험	10.7	8.3	11.6	8.8	12.8	10.0	13.7	7.0
퇴직연금	13.1	11.4	14.3	9.1	22.5	57.4	23.9	6.0
손해보험 합계	102.3	7.0	107.7	5.3	120.1	11.5	125.4	4.4
(퇴직연금 제외)	89.2	6.4	93.4	4.7	97.6	4.5	101.6	4.1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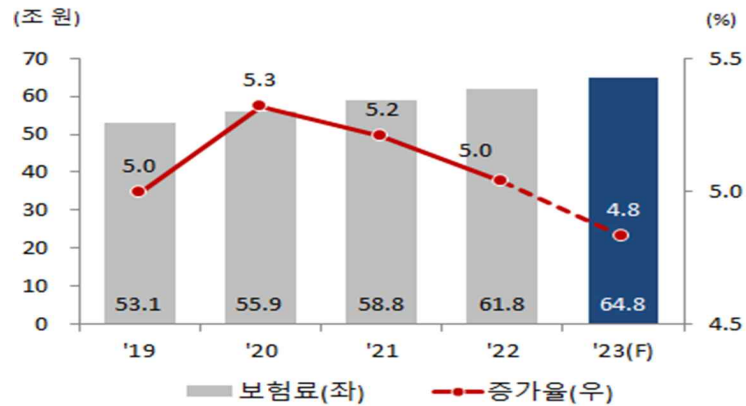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장기손해보험

○ 2023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4.8% 증가가 전망되나 증가율은 이전에 비하여 둔화될 것임

- 질병 및 상해보험은 IFRS17 시행으로 보장성보험의 판매 유인이 확대되고 건강에 대한 니즈도 계속 증가하여 성장세가 유지될 것임
-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배상책임의 사회적 관심 확대와 법률 강화 추세로 고성장을 지속할 것임
- 저축성보험은 금리상승에도 보장성보험 중심의 판매전략 지속이 예상되면서 성장이 제한적일 것임

〈그림 II-12〉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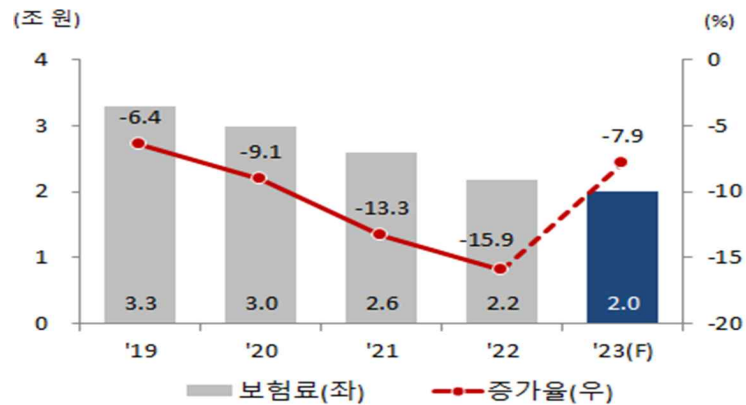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개인연금

○ 2023년 개인연금⁸⁾ 원수보험료는 감소세가 줄어들어 전년 대비 7.9% 감소가 전망됨

-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액공제 한도 확대⁹⁾로 신규가입은 증가할 것이나 지속된 감소세로 인해 역성장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임

〈그림 II-13〉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8)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개인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 가운데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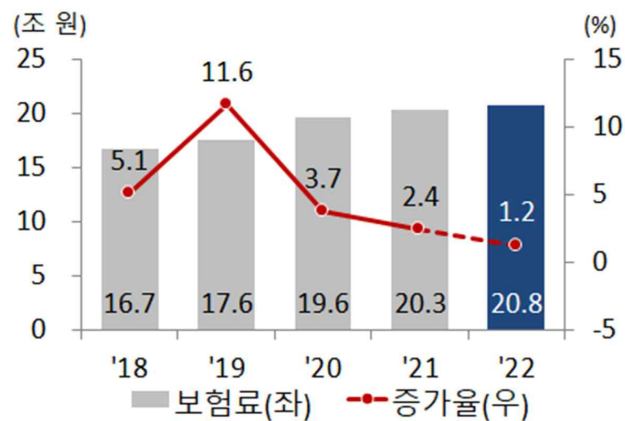
9)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됨

4) 자동차보험

○ 2023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조정, 온라인채널 확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1.2% 성장에 그칠 것임

-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로 2023년 초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됨¹⁰⁾
- 온라인채널을 통한 판매가 확대되면서 자동차보험의 가격 민감도는 높아짐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¹¹⁾에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는 제한적일 것임

〈그림 II-14〉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5) 일반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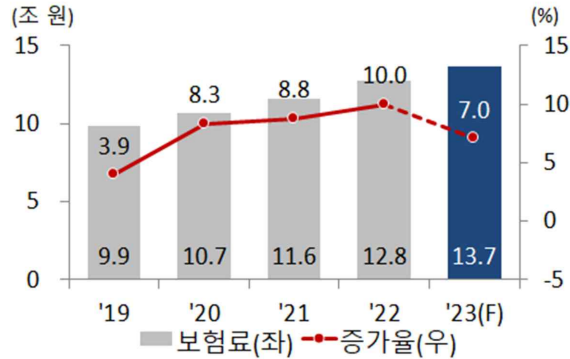
○ 2023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7.0%의 양호한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 화재보험은 주택 화재보험의 수요 확대로 2.0% 증가가 예상됨
- 해상보험은 수·출입 물동량 확대, 조선수주 증가, 환율 영향 등으로 3.9% 증가가 전망됨
- 보증보험은 신용보증 수요 중심의 2.4% 성장에도 증가세는 이전에 비해 소폭 둔화될 것임
- 특종보험은 배상책임시장 확대, 신규위험 및 의무보험 확대 등으로 8.5% 성장이 예상됨

¹⁰⁾ 2023년 2월까지 약 2%대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이루어짐

¹¹⁾ 기획재정부(2022. 12. 19),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그림 II-15〉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II-4〉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22		2023(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일반손해 합계	127,641	10.0	136,635	7.0
화재	3,195	0.3	3,260	2.0
해상	8,762	17.8	9,103	3.9
보증	20,842	2.6	21,342	2.4
특종 ²⁾	94,842	11.4	102,930	8.5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특종보험에 해외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보험권 퇴직연금

○ 2022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이 15.5%, 손해보험이 57.4% 증가함

- 일부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시장 재진출,¹²⁾ 퇴직연금 시장 확대, 공시이율 상승에 따른 유치경쟁 심화 등으로 보험산업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규모는 증가함
 - 공시이율 경쟁으로 적립금 유출이 우려되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 고객확보 노력이 이어짐
- 반면, 퇴직연금 적립금 측면에서는 금리상승에 따른 사업자 간 공시이율 경쟁심화로 퇴직연금 사업자 간 적립금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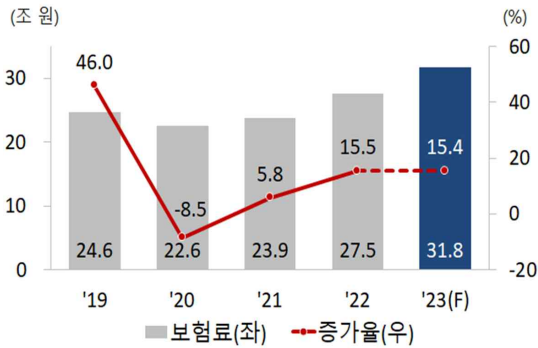
○ 2023년 보험권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생명보험이 15.4%(31.8조 원), 손해보험이 6.0%(23.9조 원)가 전망됨

- 퇴직연금 유치경쟁으로 보험산업에서 이탈한 적립금의 영향 등으로 보험산업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성장세는 둔화될 것임
- 은퇴 후 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 및 세액공제 혜택 증가¹³⁾에 따른 IRP 시장 확대와 공시이율 상승은 퇴직연금 보험료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요구자본 부담, 경기둔화에 따른 신규고용 감소 및 임금상승률 둔화,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 확대 등은 보험료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임

¹²⁾ 신규 영업을 중단하였던 메리츠화재가 2022년 퇴직연금 사업에 재진입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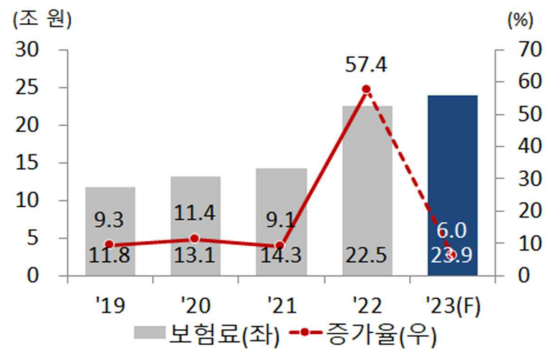
¹³⁾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포함 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됨

〈그림 II-16〉 생명보험 산업의 퇴직연금 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7〉 손해보험 산업의 퇴직연금 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성과의 편차

○ 최근 보험회사 간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의 편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경제·금융 불확실성 지속, 영업경쟁 심화, 회계제도 변화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경제·금융 환경이 악화될 경우 수익성·건전성이 열위에 있는 회사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될 수 있음
 - 산업 전체의 이익이 증가할 때는 대형사 이익집중도와 수익성 편차가 하락하는 반면, 산업 전체의 이익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대형사 이익집중도와 수익성 편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¹⁴⁾
- IFRS17 사전공시를 분석하면,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 간, 산업 내 보험회사 간 당기순이익의 편차가 IFRS4 기준에 비해 더욱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22년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IFRS4 당기순이익의 표준편차는 1,840억 원, IFRS17 당기순이익의 표준편차는 3,404억 원이며,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IFRS4 당기순이익의 표준편차는 4,283억 원, IFRS17 당기순이익의 표준편차는 6,406억 원임
 - 2022년 말 IFRS4 기준 당기순이익 규모는 생명보험산업 3조 7,039억 원, 손해보험산업 4조 6,775억 원 인데 비해 IFRS17 기준 당기순이익 규모는 생명보험산업 3조 9,337억 원, 손해보험산업 7조 787억 원 으로 산업 간 차이가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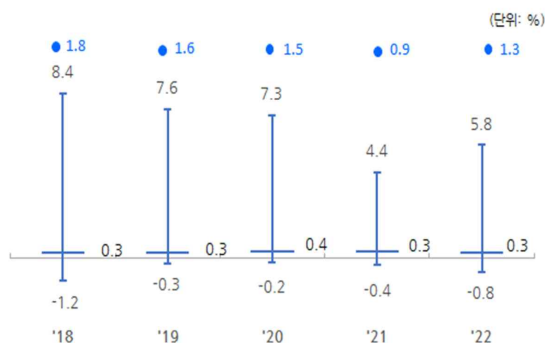
¹⁴⁾ 조영현·최원(2023. 1. 30), 「손해보험회사의 이익집중도와 수익성 편차」,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Box 3 ▶ 보험회사 성과 편차의 추이

○ 2021년까지 감소했던 보험회사 수익성의 편차는 2022년에 확대됨

- 2021년 ROA의 표준편차는 0.9%(생명보험), 1.2%(손해보험)이었으나, 2022년에는 각각 1.3%, 2.2%로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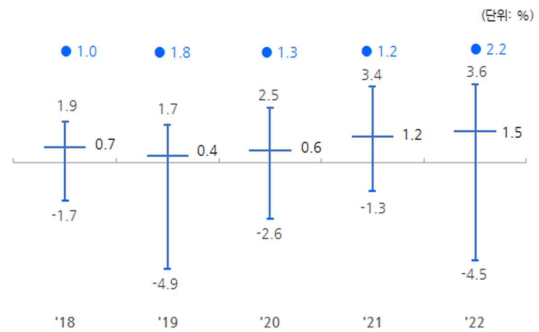
〈Box 3 그림 1〉 생명보험회사 ROA 분포



주: 1) '-'는 ROA 최댓값, 최솟값, 중위값을 의미함
2) '●'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Box 3 그림 2〉 손해보험회사 ROA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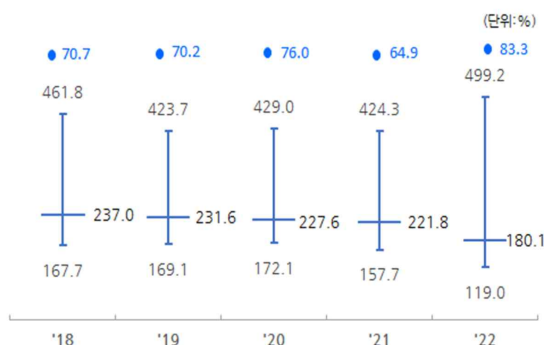
주: 1) '-'는 ROA 최댓값, 최솟값, 중위값을 의미함
2) '●'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3) 손해보험 11개사를 대상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의 표준편차도 2022년에 확대되어 생명보험회사 83.3%, 손해보험회사 58.1%를 나타냄

- 2023년 1분기 K-ICS 비율(경과조치 전)의 표준편차는 생명보험회사 91.2%, 손해보험회사 56.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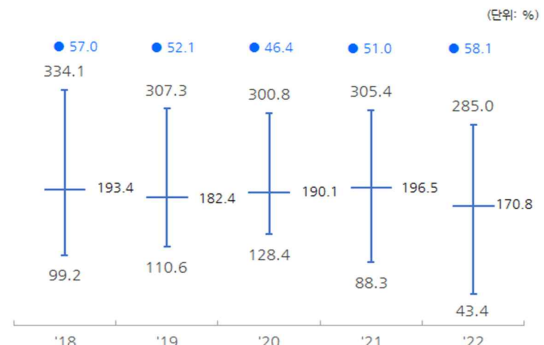
〈Box 3 그림 3〉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분포



주: 1) '-'는 지급여력비율 최댓값, 최솟값, 중위값을 의미함
2) '●'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Box 3 그림 4〉 손해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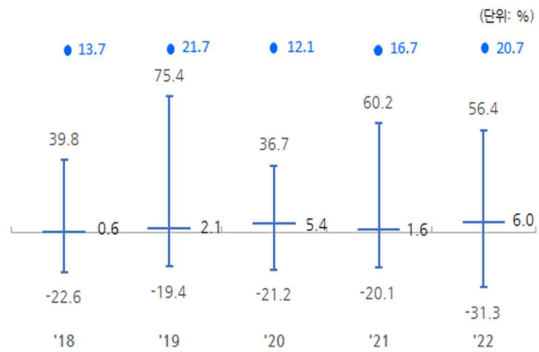


주: 1) '-'는 지급여력비율 최댓값, 최솟값, 중위값을 의미함
2) '●'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3) 손해보험 11개사를 대상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 보험료 성장률의 표준편차는 최근 3~4년간 확대되었으며, 2022년 생명보험회사 20.7%, 손해보험 회사 25.4%를 나타냄

〈Box 3 그림 5〉 생명보험회사 보험료 성장성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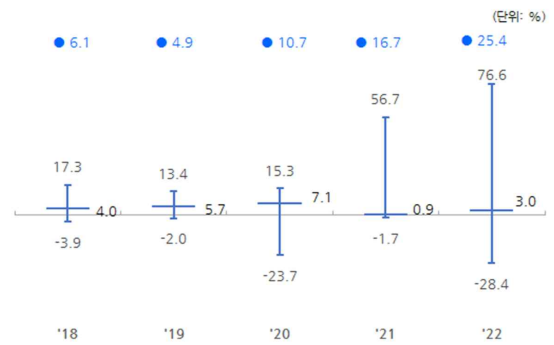


주: 1) '-'는 수입보험료 성장률 최댓값, 최솟값, 중위값을 의미함

2) '●'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Box 3 그림 6〉 손해보험회사 보험료 성장성 분포



주: 1) '-'는 원수보험료 성장률 최댓값, 최솟값, 중위값을 의미함

2) '●'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3) 손해보험 11개사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저자약력

조영현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 연구위원(총괄)
E-mail : youngcho@kiri.or.kr

최원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 수석연구원
E-mail : kinowon@kiri.or.kr

김혜란 건국대학교 경영학 석사 / 연구원
E-mail : hrkim@kiri.or.kr

강윤지 인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박사 / 연구원
E-mail : yoonji34@kiri.or.kr

김가현 한양대학교 경제학 석사 / 연구원
E-mail : gahyun637@kiri.or.kr

CEO Report 2023-05호

2023년 보험산업 수정 전망

발행일 2023년 07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ISBN 979-11-93021-09-5